

# 손이어 함까지... “금감원, DLF 중징계 부당” 법정 간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법무법인 ‘화우’ 법률대리 담당할 듯  
가처분신청, 여유 두고 신청할 계획  
하나銀 과태료 이의제기... 소송에 힘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영  
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오는 2일 서  
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은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소송의 법률대리를 담  
당하는 법무법인 화우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DLF 사태  
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  
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은행장  
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  
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입기를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당시 입기 만료가 가까웠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  
했고, 행정 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  
들어지면서 연임했다. 행정소송법에 따  
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취  
소 제소기간이 오는 3일까지여서 함 부  
회장이 막판에 소송 제기를 결심한 것  
으로 풀이된다.

다만 함 부회장은 징계 효력을 정지  
할 가처분신청은 여유를 두고 신청할  
계획이다. 함 부회장의 입기 만료는 오  
는 12월로 아직까지 연임여부를 걱정하  
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서다. 가처분신청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원에 요청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도 손 회장과

같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  
여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  
이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봤다. 금융위  
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들만 보면 금감원  
은 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 외  
에는 권한이 없어 권한 밖의 징계를 내  
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함 부회장의 소송 결과에 따라  
차기 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  
재 하나금융 내부에서 함 부회장은 김  
정태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유력후  
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태 회장의 4연  
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금융권 안팎  
의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다.

하나은행이 DLF 사태로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한 부분도 함 부회장의 소

송에 힘을 보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DLF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함 부회장의 취소소송은  
개인차원에서 진행하지만 이 경우 일부  
승소만 이끌어내도 제재수위가 낮아져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측이 공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이 함 부회  
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  
을 것”이라며 “이의제기 결과 또한 함  
부회장의 소송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아직 함 부회장  
에 대한 소송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며  
“함 부회장의 소송과 하나은행의 과태  
료 관련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  
문에 함 부회장에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수은, 기업 해외사업 타당성조사비 직접 지원

유망 사업 조기 발굴... 수주 확대 기대  
19일 접수 마감... 내달 사업선정 완료  
인프라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신청 가능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진출을 타진  
하는 국내기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때 소  
요되는 용역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사  
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F/  
S)란 해외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술, 재  
무, 법률 등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일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우리기업의 초기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을 지원해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수은은 지난 3월 업무방법서를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 관련 내규 제정  
을 마무리한 바 있다.

수은은 이날 1차 공개모집을 시작으  
로 오는 19일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초까지 사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해

외 대형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사업타  
당성조사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및 입찰 사전준비에 필  
요한 외부용역비용 지원 등 크게 두 가  
지다.

사업공모에는 인프라 분야를 포함해  
병원, ICT, 제약·바이오,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기  
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지원제도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  
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 “이제 수은은 사업 초기 타당성조사  
지원부터 사업자문·금융자문, 대출·보  
증, 자본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프  
로젝트 전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췄  
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씨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F)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5000명분을 기부했다. (왼쪽부터)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한일현 법인장, 신한인도네시아 황대규 법인장,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F) 뿌라신따 데위 부청장, 코트라(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이종윤 관장, 신한카드 인도네시아 김태정 법인장. /신한금융

## 신한금융 씨젠·코트라와 인니 코로나 극복 지원

코로나 진단키트 5000명분 기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씨  
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  
NPF)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키트 5000명분을 기부  
했다고 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말 기준 확진자  
2만6473명, 사망자 1613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에 2015년 신한은행이 현지은행을 인수  
하며 진출했다. 이후 신한카드와 신한  
금융투자가 동반 진출하며 현지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함께 기부에 동참한 씨젠  
은 세계 60여 개국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지난 4월부터 신한금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사회에 진단키  
트를 기부하고 있다. KOTRA는 인  
도네시아에 전달할 코로나19 진단키트  
의 통관 및 배송을 맡아 이번 기부가 원  
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생활보험 플랫폼”... 하나손보 공식 출범

디지털 기반 종합 손해보험사 목표  
신속·편리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손해보험을 디지털로 손  
보겠다.”

하나손해보험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디지털 기반 종합 손해보험사로서 본격  
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권태균 하나손해보험 사장은 1일 출  
범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신생활보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선포했다. 권 사장은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신생활보험 플랫폼’을 신  
속히 구축함과 더불어 관계사와의 다양  
한 시너지를 통해 손해보험 시장에 새  
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제시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하나손해보험은 하나금융그룹 내 최  
초의 손해보험사이자, 하나금융지주의  
14번째 자회사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지  
난 2월 더케이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

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 공식출범  
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하나손해보험은 더케이손  
해보험의 보험업에 대한 노하우와 하나  
금융의 디지털 기반 금융자산관리 노하  
우를 더해 디지털 기반 종합 손해보험  
사를 목표로 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우선 기존의 자동차  
보험 등 전문 분야에 디지털트랜스포메  
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  
한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금융서비  
스를 제공한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제휴를 더해 새  
로운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는 ‘신생활  
보험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하나금융그룹 온라인 채널 및 외부 네  
트워크와의 콜라보로 여행사, 레저, 특  
화보험 위주의 그룹 플랫폼 활성화 상  
품을 출시한다.

/나누리 기자

## 신한銀 이커머스 고객 우대 예금 출시

신한은행은 온라인 마켓 11번가, 신  
한카드와 협업해 우대금리와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한11번가 정기예금’을 출  
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 11번가 정기예금’은 최소 50만  
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3개월제 상품이다.

상품 가입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 쉐  
(SOL)와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 채널  
에서 가입 가능하며, 선착순 총 10만좌  
를 판매한다. 기본금리는 연 0.8%다.  
오픈뱅킹 서비스 신규 가입 시 연 0.3%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11번가 신한카드  
(신용) 첫 결제 고객대상이 해당카드로  
11만원 이상 이용 시 만기에 추가로 연  
2.2% 리워드를 지급해 최대 연 3.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  
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銀, 계좌이동 서비스 고객 이벤트

농협銀 계좌로 자동납부 변경

NH농협은행은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이벤  
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  
좌(농·축협 제외)로 등록된 자동납부(계  
좌간 자동이체 변경 제외)를 농협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농협은행 인터넷/스  
마트 뱅킹·올원뱅크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이스 청소기, 예  
어파트로,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  
품을 제공한다. 또 인스타그램과 페이  
스북에 댓글을 달고 리그램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